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17호> 2017년 10월 발행

「What`s Up, OITA!」는 세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오이타와 인연있는 여러분들께, 일본 오이타현의 ‘지금’을 전달해드립니다.



【인사】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과장 토쿠노 미츠루(徳野 満)

9월 말, 태풍 탈림이 상륙하며, 현 남부를 중심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달에는 다양한 국가의 손님들께서 오이타현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방글라데시의 특명전권대사를 비롯해, 피지, 키리바티, 파푸아뉴기니 등의 남태평양 및 대만의 의원들이 벳푸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석해주셨습니다. 2년 후에 열리는 럭비 월드컵 2019 때도 오이타를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오이타현 주목 기사>

한중일 3개국 지방정부 교류회의에서 오이타현 홍보



8월 28일~ 9월 1일에 걸쳐 한국 울산광역시에서 ‘한중일 3개국 지방정부 교류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본 회의는 1년에 한 번, 한국, 중국, 일본 각지에서 3개국 지방정부간의 교류 및 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에는 3개국에서 총 500명의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교류회의의 메인테마는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발상의 전환)’을 통한 북동아시아 지방정부발전시책의 모색’으로, 관광과 환경, 저출산 고령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소개 및 패널 디스커션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오이타현은 홍보 부스에서 럭비 월드컵2019 개최 및 관광 등의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오이타현 소식>

태풍 탈림 영향으로 피해 발생

17일 오이타현에 근접해온 태풍 탈림의 영향으로 현 남부를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각지에서는 하천이 범람하거나 산사태가 일어나는 등 3,500채가 넘는 건물이 침수되고 1명이 사망, 5명이 부상을 입는 인적 피해도 있었습니다.

현내는 17일 정오 쯤 풍속 25m이상의 폭풍권에 들며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오이타지방기상대에 따르면, 츠쿠미시 및 사이키시는 시간 당 110~120mm의 호우가 내렸다고 합니다.

럭비 탑 리그 시합 개최



2019년 개최되는 럭비월드컵의 경기장인 오이타은행 돐에서 재팬럭비 탑리그 캐논 대 야마하 발동기의 경기가 펼쳐져 현내외에서 1만 8,000명이 넘는 관객이 모였습니다. 관객들은 박력 넘치는 플레이에 매료되었으며, 돐 내에서는 이벤트 및 음식 등을 즐길 수 있는 ‘팬존’의 부스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럭비 체험 및 기념 촬영 등 경기를 보러온 관객들도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17호> 2017년 10월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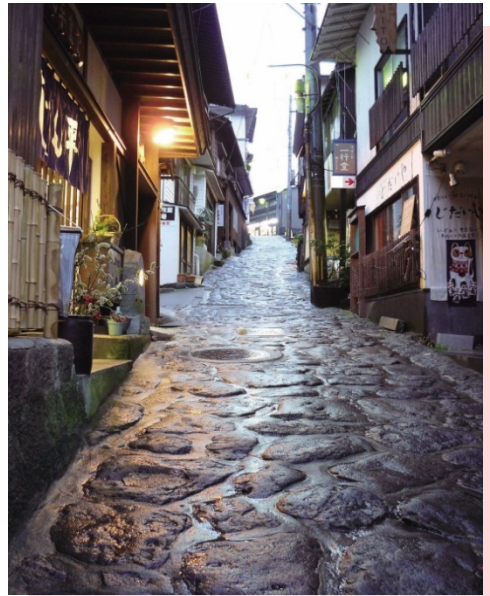
오이타 100% 즐기기! 유노히라 온천

유후인에서 약 15km 떨어져있는 유노히라는 요양 온천지로서 번영한 곳입니다. 이후 유후인 온천이 인기 관광지로 부상하면서 유노히라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줄어들며, 현재는 20여 곳의 료칸만이 영업 중인 한적한 온천 마을입니다.

유노히라역은 무인역이며, 역에서도 산 속에 위치한 유노히라 온천 마을은 차를 타고 약 1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료칸의 송영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택시를 이용해서 갈 수 있습니다.

유노히라에 도착하자 300년 전에 정비된 돌길이 유노히라 온천만의 멋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오래된 역사를 느끼게 해줍니다. 하천의 시원한 물소리와 함께 밤이 되면 마을 길목이 흥등으로 붉게 물들어 낮과는 또 다른 모습을 연출합니다.

유노히라 온천에는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킨노유 등 5개의 공용 온천탕이 있습니다. 요금은 200엔으로, 료칸 숙박객은 100엔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산 속 탕치장(湯治場)으로 유명한 유노히라 온천에서 요양해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유노히라의 돌층계

야마시로야 니노미야 켄지 대표



산 속에 있는 유노히라 온천을 멀리서 찾아올 만큼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기있는 료칸이 있습니다. 옛날 우체국을 개조해 만든 창업 50년의 작은 료칸 야마시로야입니다. 트립어드바이저의 '일본 료칸부문 2017'에서 만족도 전국 3위 (규슈 1위)를 기록하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야마시로야의 니노미야 대표가 인바운드(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을 담은 '산 속 작은 료칸이 연일 외국인 손님으로 만실이 되는 이유'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니노미야 대표는 일찍이 외국인 숙박객 유치의 중요성을 깨닫고 료칸을 운영하며, 인바운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현재 유학생의 도움을 받아 료칸의 다언어 홈페이지를 만들고, 외국인들이 불편함을 느낄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외국인의 시점에서 고민하고 나라별 생활습관을 파악해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또 료칸 안에 관광 정보 및 팸플릿을 모아둔 국제관광정보 살롱을 만들고, 외국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노히라 역까지 오는 방법과 입욕 매너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왔으며, 숙박객의 다음 날 일정까지 파악하는 세세함까지 일본이 처음인 외국인도 익숙하지 않은 료칸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배려 깊은 환경을 조성해왔습니다. 니노미야 부부의 친절함과 다양한 노력의 결과, 현재는 무려 숙박객의 약 80%가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나라별 비율은 한국이 49.5%, 일본 17.8%, 홍콩 14%, 중국 4.7% 순으로 특히 한국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책에는 니노미야 부부의 노력이 더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지만, 직접 숙박해보시면 외국인 숙박객율이 높은 이유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17호> 2017년 10월 발행

오이타 100% 즐기기! 유후인



유후인

오이타현 중앙부에 위치한 유후인은 벳푸, 쿠사츠에 이어 일본에서 3번째로 용출량이 많은 곳으로,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오이타현 대표 관광지입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는 한국인의 비율이 가장 높을 정도로 한국인에게도 인지도 높은 곳입니다.

해발 1584m의 분고후지라고도 불리는 명산 유후다케를 비롯한 산들로 둘러싸인 분지로 안개가 자주 끼는 것이 특징이며, 일본 고유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고즈넉한 료칸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온천을 즐길 수 있습니다.

1975년 발생한 오이타현 중부 지진으로 유후인도 피해를 입으며, 자연스레 관광객의 발길이 멀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관광객을 불러모으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게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츠지마차입니다. 정감있는 말발굽 소리가 유후인의 차분한 분위기와 어울리며 많은 인기를 모았습니다. 츠지마차와 함께 영화제 및 음악제가 개최되며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가 되었으며, 이 밖에도 유후인을 편하게 관광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영국의 클래식차와 인력거, 렌탈 자전거 등이 있습니다.

츠지마차



킨린코 호수

유후인역에서 유노츠보거리를 따라 들어가면, 평화로운 킨린코 호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호수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의 비늘이 저녁 노을 빛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이는 것을 보고 킨린코(金鱗湖)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호수 바닥에서 따뜻한 온천수와 찬물이 동시에 솟아나 추운 겨울 아침에는 물안개가 끼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고 합니다.

잔잔한 호수와 자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거나, 벤치에 앉아 유유히 헤엄치는 오리 등을 보며 사색에 잠기기 좋은 곳입니다.

유후인역에서 킨린코호수까지 이어지는 길을 가리키는 유노츠보 거리는 약 1km에 이르는 거리 양쪽으로 아기자기한 상점들과 카페, 미술관 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유리 공방이나 개성 넘치는 기념품 가게, 지브리 영화 굿즈 판매점은 늘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또 대표적인 먹거리인 금상 고로케와 롤케이크, 다코야키,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 앞은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며 관광하는 것도 유후인을 만끽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유노츠보 거리

